



진안·무주 전라고 동문회, 상호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지난 14일 개최된 진안·무주 전라고 동문체육대회 행사에서 진안 동문들과 무주 동문들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200만원을 서로 전달하며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이번 기부는 지역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상호기부를 추진하게 됐다. 이날 안호영 국회의원, 전춘성 진안군수, 황인홍 무주군수도 방문해 동문들의 체육대회를 축하하며 고향사랑기부에 적극 성원해주신 동문들에 감사드리라며 끊임없는 고향사랑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 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 우리끼리 챌린지 진행

남원시 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일신)는 지난 13일 꿈드림 청소년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리끼리 챌린지(우.끼.지)'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중증장애인 시설 '편한세상'과 '스마일빌'에 거주하는 장애인 어르신들을 방문,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간식과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정성껏 구운 카스테라를 들고, 어르신들의 하루가 포근한 행복으로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사랑을 전했다. 전달식에서 편한세상 측과 스마일빌 측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느껴며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경찰, 체류 외국인 위한 범죄예방교실 실시

김제경찰서(서장 박승준) 범죄예방진단팀(CPO)는 지난 15일 김제시 가족센터와 협업체 관내 체류 외국인 50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범죄예방교실은 김제에 체류 중인 외국인과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대한민국 내에서의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를 비롯해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생활 속의 법과 질서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체류자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강제 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제도의 취지와 중요성도 안내했다. 김제경찰서 범죄예방팀의 차후 외국인 범죄예방교실은 6월 29일 진행될 예정이며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장수군 여자탁구단, 춘계회장기 실업탁구 승전보

장수군청 여자탁구단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경북 경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춘계회장기 실업탁구대회'에서 혼합복식 2위, 여자복식과 단식에서 각각 3위를 차지하며 뛰어난 기량을 입증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8개 실업탁구단이 참가해 뜨거운 경쟁을 펼쳤다. 참가팀으로는 포항시체육회, 수원특례시청, 대전시실업리공단, 금천구청, 서울시청, 제천시청, 안산시청 등 국내 실업탁구 주요 전력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혼합복식 부문에서 활약한 노푸름 선수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뛰어난 파드너십으로 결승까지 진출, 최종 준우승을 차지하며 팀의 최고 성적을 견인했다. 여자복식에서는 최지인·유민지 조가 8강전에서 금천구청을 세트스코어 3:0으로 완파하고 준결승에 진출했으나, 대전시실업리공단에 아쉽게 패해 공동 3위를 기록했다. 단식 부문에서도 최지인 선수가 꾸준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3위에 오르며 개인 기량을 입증했다. 한편 장수군청 여자탁구단은 지난해 '2024 내셔널 컵 실업탁구대회' 단체전 준우승, 올해 '2025 실업탁구 챔피언전' 단체·개인전 3위에 이어 이번 춘계대회에서도 상위 입상 성적을 기록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정음을 뜨겁게 달군 청소년들의 무대

'늘푸른 청소년문화제' 성료... 청소년 록밴드 경연 · 14개 부스 운영 등 다채

정읍 청소년들이 그간 갈고닦은 끼를 마음껏 펼치며, 정읍체육관이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정읍시는 지난 14일, 정읍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늘푸른 청소년문화제'가 청소년과 시민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BBS 전북연맹 정읍시지회(회장 이정훈)가 주최·주관하고 정읍시가 후원했으며, 청소년들이 직접 주인공이 되는 무대로 문화 감성과 창의력을 키우는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현장 낭독으로 문을 열었고, 청소년 지도·보호 육성 유공자와 모범 청소년에 대한 정읍시장 표창이 진행됐다. 유공자 부문에는 양병준(청소년수련관), 윤귀영(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 배금섭(BBS 정읍시지회), 서승아(정읍교육지원청 위센터) 씨가 수상했고 모범 청소년으로는 정주교 최다영, 호남중 정원성, 김유정, 왕신여중 김혜원 학생이 선정돼 자리를 빛냈다. 이어진 무대에서는 댄스, 보컬, 록밴드 등 총 11개 팀이 열정 가득한 경연을 펼쳤다. 이 중 연합팀 '뉴인드팩토리' 팀이 뛰어난 무대 완성도로 대상을 수상하며 관객의 박수를 받았다. 축하공연으로는 짹짹크루 비보이팀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펼쳐져 현장을 더욱 뜨겁게 달궜다. 청소년문화체육관 주관으로 진행된 어울림마당 체험



행사에는 3D펜, 드론 비행, 캘리그래피 등 14개 부스가 운영되며 청소년들의 눈과 손을 사로잡았다. 이학수 시장은 "청소년들이 갈고닦은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자신감을 얻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늘푸른 청소년문화제는 매년 청소년어울림마당과 함께 열리며, 지역 청소년의 예술적 잠재력과 성장을 응원하는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역사회와 함께 신앙 · 교육의 유산 기리다

전주대, 설립자故 강홍모 목사 23주기 추모예배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4일 대학교 설립자故 강홍모 목사의 23주기 추도 예배를 대학교회 및 소리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배는 지역사회에 신앙과 교육의 씨앗을 뿌린 강홍모 목사의 뜻을 되새기고 계승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에 따르면 강 목사는 6·25 전쟁 이후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학생들을 복음으로 품고자 전 재산을 기부해 학교법인 구 영생학원을 설립했다. 그의 헌신으로 전주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전주영생교, 전주사대부고 등이 설립됐다. 지역 교회 설립에도 앞장서 전주영생교회, 우아영생교회, 구암영생교회를 세워 복음 전파와 지역 공동체 형성에 역할을 했다. 이날 추모예배에는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산하 학교 총동문회 관계자, 전주영생교회 및 지역 목회자, 소리기 넘사벌회 인사 등 다양한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고인의 신앙과 헌신을 기렸다. 참석자들은 강 목사가 남긴 복음과 교육의 유산이 오늘날 전북 지역사회의 인재 양성과 가치 형성에 얼마나 깊은 뿌리를 내렸는지를 되새겼다. 추모예배는 최일탁 목사의 사회로 차준순 목사(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이사장)의 설교, 전주영생교회 감동연담임목사 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 조희민 전주영생교 총동문회장, 정영순 전주대



학교사범대학부설교 총동문회장, 한병수 목사(전주대 선교봉사처장), 임정엽 전주대 총동문회장 등의 헌화와 기도도 설립자故 강홍모 목사를 추모했다.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차준순 이사장은 "설립자故 강홍모 목사님의 삶은 단순한 교육자의 길을 넘어 지역사회에 사랑과 섬김의 가치를 심은 신앙의 본보기였다"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농협, 농촌일손돕기 캠페인... 농촌 인력난 해소 총력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지난 13일 전북본부 대회 의실에서 '전북농협 농촌일손돕기 캠페인'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범농협 차원의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이번 캠페인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심화되는 농촌 인력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추진되었으며, 특히 임직원이 참여한 농촌일손돕기 참여 캠페인 홍보 동영상 등을 통해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등 일손돕기 불 조성에 기여했다. 전북농협은 지난 4월 2일 영농발대식을 시작으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일손돕기를 전개해오고 있으며, 6월 중에는 '전북농협 한마음 농촌일손 집중지원의 날'을 운영해 300여 명이 참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실질적인 힘을 보태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였다. 또한 농촌인력증가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공급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약 18만명의 인력을 공급하였고, 올해는 19만명 이상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확대 운영 중으로, 2024년



11개소에 이어 2025년에는 14개소가 선정되어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현재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과제"라며, "전북농협은 농업인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김제신협, 취약 청소년 가정 주거환경개선 지원

김제신협(이사장 백강석)은 지난 13일, 김제시 요촌동 일대에서 지역 내 취약 아동·청소년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신협 행복합집 프로젝트'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요촌동 일대의 청소년 가정을 대상으로 프로젝트가 실시되었으며, 김제신협 백강석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7명 그리고 소상공인 봉사단 5명이 참여했다. 김제신협은 해당 가정의 전체 도배와 장판시공을 진행했으며, 학생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침대, 책상, 행거 등 다양한 가구와 생활품을 선물했다. 백강석 이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이 따뜻한 공간에서 꿈을 키워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며 "김제신협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나눔축산운동 이웃사랑 노인복지 후원 행사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과 (사)나눔축산운동본부, 전주 김제원주축협(조합장 김창수)은 지난 13일 김제시 용지면에 위치한 비룡농원을 방문해 '나눔축산운동 이웃사랑 노인복지 후원'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이정환 전북농협 본부장, 김창수 전주김제원주축협 조합장, 김유현 농협김제시지부장 등이 참석하여, 한센인 정착농원(비룡농원, 신안농원, 신흥농원)을 대상으로 500만원 상당 한우사골곰탕세트를 후원하고, 따뜻한 사회구현과 나눔축산운동의 뜻을 함께 실천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기전대 중앙동아리, 초록별대와 숲체협 봉사

전주기전대학 중앙동아리 '봉우리'가 걸스카우트 전북연맹 초록별대와 협력해 전주시 건진사 일대에서 유아 대상 숲체협 플로깅(Plogging) 활동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동아리 중심의 지역 연계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재학생 6명이 참여해 유아들과 함께 숲속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실천 활동과 더불어 자연놀이등을 교육을 진행했다. 참여 학생들은 사전 안전교육과 활동 매뉴얼을 기반으로 현장 지원 및 유아 인솔 보조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봉사를 넘어 세대 간 통합 환경교육의 실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유아는 놀이를 통해 자연을 체험하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몸으로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대학생들은 친환경 교육 실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교육적 소양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했다. 지도교수인 은은아 교수(유아교육과)는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유아를 직접 지도하며 환경교육을 실천해 본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이런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참여 학생인 장세연(3년) 학생은 "아이들과 함께 숲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일이 보람되고 즐거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김제 백산면, 공익직불제 등 등록 관리위원회 개최

김제시 백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3일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및 전라작물 직불제 등록(심사)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장(면장) 및 위원 6명(마을대표 등)으로 구성된 직불제 등록관리위원회는 올해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백산면 기본형 공익직불제 관할지 기준 762명, 전라작물 직불제 178명(동계73명, 하계105명)에 대해 실제 농업종사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확인했다. 이날 중 직불금 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금 내용에 수정 사항 및 이의 사항이 있을 시 오는 7월 4일까지 변경신고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정찬일 백산면장은 "직불금 지급 전까지 계속적인 검증을 통해 정당한 농가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 · 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010-9845-4113	진안지사 010-9845-4113	익산지사 010-9845-4113	무주지사 010-9845-4113
삼천지사 010-2333-4791	송천지사 255-2404	김제지사 010-9845-4113	고창지사 010-9845-4113	정읍지사 010-9845-4113	무주지사 010-2300-4253
서신지사 272-9417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고창지사 010-9845-4113	
호지지사 010-6645-9935	익산지사 659-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